

##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윤 가 영<sup>1)</sup> 이 준 배<sup>2)</sup> 박 선 응<sup>†</sup>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느 측면을 통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발달, 웰빙, 우울을 묻는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참여자의 웰빙과는 부적, 우울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한 참여자의 정체성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는 곧 낮은 정신건강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매개변인으로 정체성 발달을 제시하며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부정적 측면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개입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학업성취압력, 정체성 발달,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우울, 매개효과

1)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사과정

2)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사과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부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행복한 삶은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행복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도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행복한 삶, 좋은 삶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71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20대의 행복 수준이 가장 낮았고(최은수, 최종안, 최인철, 2019), 2021년 기준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이런 결과들은 한국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경험은 성인기의 삶의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학업성취 수준과 교육열은 국제 사회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OECD 평균 이상이었으며,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79개국 중에서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높은 학업성취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룬 한국사회에는 명문대 입학, 고학력 취득이 곧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학벌주의 신념이 존재하고, 이런 신념 아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녀의 학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문상석, 연유식, 2010; 박영균, 박영신, 김의

철, 2010).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은 학업성취압력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자녀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체성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변인으로 한국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기에 대학 입학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은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청년기 자녀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정체성 발달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보다 높은 위치로 사회 이동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력 취득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명문대 입시와 대기업 취직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삶의 중요한 과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부모들은 학업적 성공이 미래의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고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자녀 삶에 우선순위로 둔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때의 압력은 가치중립적 용어로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가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발현된다.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압력은 크게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다(선혜연,

오정희, 2013). 양육태도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점을 설정하고 성취 결과에 집착하며 결과에 따라 보상이나 처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영철, 2003; 김의철, 박영신, 2008; 홍은자, 김희진, 2003). 양육태도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기대감의 형태로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며, 자녀의 높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추상엽, 임성문, 2008). 반대로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흥미, 적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점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강한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로 지각된다(홍은자, 김희진, 2003). 이는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인식시키며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심리적 고갈, 학업소진,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초래한다(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선혜연, 오정희, 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두 측면 모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주로 자녀의 학습의 활동을 억압하고 자녀의 성취나 진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자녀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압력에 집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과잉통제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로부터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을 규제받고 간섭받은 청소년들은 높은 우울과 낮은 심리

적 웰빙 및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김영민, 임영식, 2013; 이현지, 김민수, 2021; Shaffer, 1999). 나아가 이런 부정적 영향력은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잉간섭과 우울, 삶의 만족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간섭을 높게 지각한 자녀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의 간섭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울의 증가 폭과 삶의 만족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정문경, 2020). 더불어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보호는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 우울, 불안과 관련이 높다(정문경, 2019; 황예텔, 이경순, 2019; Kouros, Pruitt, Ekas, Kiriaki, & Sunderland, 2017). 이런 결과들은 학업성취압력을 포함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이후 성인이 된 자녀의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신건강 2요인 모델

과거 정신건강의 측정은 정신병리의 유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정신병리와 정신건강이 연속선상에 있는 반대 개념이라고 가정한 정신건강 1요인 모델에 근거한 방식으로, 정신병리의 부재를 곧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신병리와 정신건강은 서로 상호보완적이지만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김현정, 고영건, 2012; Greenspoon & Saklofske, 2001; Keyes, 2007; Suldo & Shaffer, 2008). 정신건강 2요인 모델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정신병리가 없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정신건강(positive mental health) 수준이 높은 상태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정신병리와 함께 긍정적 정신건강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Keyes, 2007; Keyes, Dhingra, & Simoes, 2010).

긍정적 정신건강은 크게 쾌락주의적 웰빙(hedonistic well-being)과 자기실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으로 구분된다(Keyes, 2007; Keyes et al., 2010). 쾌락주의적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 정서와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에 중점을 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행복함, 차분함, 평화로움, 활기참 등 긍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며 삶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좋은 삶이란 개인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충분히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는 것 또한 고려한다(Keyes, 2007). 자기실현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심리적 웰빙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Ryff, 1989)가 있는데, 이는 다음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수용(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긍정적 대인관계(타인과의 만족스럽고 신뢰 있는 관계 형성), 자율성(자신의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결단력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 환경지배력(자신이 기능할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 삶의 목표(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 설정), 개인적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척도 즉, 삶의 만족 척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와 심리적 웰빙 척도(Ryff, 1989)를 모두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행동장애 등 여러 종류의 정신병리에 대한 평정을 통해 측정된다(김현정, 고영건,

2012; 백인규, 고영건, 문기범, 2019; 신현숙, 2021; 이승연, 안소현, 2018; Keyes, 2007; Keyes et al. 2010),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우울에 집중하였다. 2021년 기준 20대 우울증 환자의 수는 17만 7,166명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최근 5년간 20대 우울증 환자의 증가 추이는 86.8%로, 20대가 연령대별 증가율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우울은 부적응적 행동, 낮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높아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강상경, 2010; 윤예인, 김주일, 2019; Papakostas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측정하는 데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와 보다 적은 문항으로 한국인의 우울장애를 더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윤서원 등, 2018)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 정체성과 정신건강

정체성<sup>1)</sup>이란 삶에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내면화된 목표나 가치, 믿음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기술된 자기규정을 의미한다(박선웅, 박예린, 2019; Erikson, 1968; Waterman, 2007). 정체성 개념을 실증적 연구로 발전시킨

1) 정체성은 성별이나 인종 등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Marcia(1966)는 정체성 발달 단계가 위계적인 지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위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Marcia(1966)의 정체성 지위 이론은 등장 이후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의 정체성 연구는 정체성이 위계적 지위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발달하거나 순차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들을 보고하며 지위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Kaufman, Cundiff, & Crowell, 2015; Luyckx, Goossens, Soenens, & Beyers, 2006; Luyckx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지위가 아닌 차원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정체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Luyckx 등(2006)은 이중 순환 모형을 제시하며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Luyckx et al., 2008)는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두루 탐색(exploration in breadth), 깊이 탐색(exploration in depth), 전념 생성(commitment making), 전념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와 함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순환 모형에 의하면, 정체성 형성 과정은 전념할 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여러 대안을 넓고 알게 탐색하는 두루 탐색과 여러 대안 중 하나의 전념 대상을 선택하는 전념 생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전념의 대상이 형성된 후에는 전념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선정된 전념 대상에 대해 깊게 탐색하는 깊이 탐색과 탐색을 바탕으로 전념을 내면화하는 전념 동일시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반추적 탐색이란 앞서 제시

된 긍정적인 정체성 차원들과는 달리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차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불확실성과 무능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Kaufman 등(2015)은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성격, 행동, 정서, 임상 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를 개발하였다.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차원인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일관된 자기관을 형성하여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비교적 일관된 믿음과 태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미래의 계획이나 가치관, 믿음, 행동적 특성 등이 일관되지 않고 불안정하여 외부 상황이나 주변인에 의해 자기관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정체성을 전혀 형성하지 않은, 자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란된 정체성은 비록 비일관적이고 불안정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정체성 결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결여된 상태라는 차이가 있다.

정체성 이중 순환 모델과 자기개념 정체성 척도에서 제시된 정체성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은 각각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변인들은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삶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Hardy, Francis, Zamboanga, Kim, Anderson, & Forthun, 2013; Marcia, 1980; Meeus, Dekovic, & Ledema, 1997; Park & Moon, 2022).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체성 차원들은 자기 확신, 자존감, 독자성, 책임감, 통합성, 심리적

성숙과 정적상관을 보인다(Cote & Levine, 2002; Cramer, 1997; Pulkinnen & Ronka, 1994).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정체성을 잘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탐색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삶의 주요 과제 탐색에 능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높다(Krettenauer, 2005). 성격적 측면에서 확고한 정체성은 성격장애와 신경증과는 부적상관을 가지고, 적응적 성격 특성 요소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Bogaerts et al., 2021).

반대로 정체성에 대한 깊은 탐색과 전념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 탐색을 경험하고, 교란된 정체성 혹은 정체성이 결여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명확한 자기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쉽게 상실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실존적 공허함을 경험한다(Cramer, 1997; Kaufman et al., 2015; Waterman, 2007).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은 비적응적인 행동, 즉 약물 남용, 행동 장애, 청소년기 이탈과 관련이 있고(Finzi-Dottan & Golubchik, 2011; Rose & Bond 2008; White & Jones, 1996), 높은 우울 및 낮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Luyckx, Schwartz, Goossens, Beyers, & Missotten, 2011; Marcia 2003). 나아가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신경증 및 성격장애와 정적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정체성 결여는 경계성 성격장애를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한다(Bogaerts et al., 2021; Kufman et al., 2015).

####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매개효과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적 주제로 제기

한 Erikson(1968)은 청소년기를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고 높은 고등 교육 참여와 직업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정체성 발달의 시기가 청소년기부터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까지로 확대되었다(Arnett, 2000; Schwartz, Cote, & Arnett, 2005). 성인모색기는 만 18세에서 25세,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본 연구의 대학생 참여자들도 이 시기에 속한다. 이들은 청소년기 대학입시에 몰두했기 때문에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모색기에 걸쳐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한국 청소년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와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가까운 타인은 자신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우 가깝고 의미 있는 타자로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 가족주의와 효(孝) 중시 문화의 특성상 한국의 부모-자녀의 관계는 다른 국가의 부모-자녀 관계보다 더 상호의존적 관계를 띤다(류정현, 2007).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자녀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녀의 학업성취를 자녀 개인의 결과물이 아닌 부모-자녀의 상호협력에 의한 결과로 지각한다(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자녀 또한 부모에게 느끼는 죄송함과 존경심을 기반으로 성취동기와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박영

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부모의 지지와 관심은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송미라, 한기백, 2015;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하지만 이러한 지지와 관심이 적정 수준을 넘어 통제, 간섭, 그리고 성취를 위한 압박, 즉 학업성취압력으로 지각된다면 이는 자녀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야기하고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등 역효과를 초래한다(김영민, 임영식, 2013; 문상석, 염유식, 2010; 서문화, 윤미선, 2021; 이현지, 김민수, 2021; 정문경, 2019; 정문경, 2020; 홍은자, 김희진, 2003; 황예텔, 이경순, 2019; Kouros, Pruitt, Ekas, Kiriaki, & Sunderland, 2017; Shaffer, 1999). 지각된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실현과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경험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Deci & Ryan, 2000). 능동적 존재인 인간에게 내적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개인의 관점과 선택이 존중되고,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자율성 지지 환경(autonomy-support contexts)은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키며 이는 사회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개인의 웰빙을 향상시킨다(송미라, 한기백, 2015; 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Assor, Roth, & Deci, 2004; Boggiano, Flink, Shields, Seelbach, & Barrett, 1993; Grolnick, Ryan,

& Deci, 1991;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반대로 개인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통제된 환경(controlling contexts)은 기본 심리적 욕구들을 좌절시킴으로써 높은 우울과 낮은 삶의 만족감을 유발한다(김성일, 소연희, 윤미선, 2008; 이의빈, 김진원, 2021; 정문경, 2020).

자기결정이론과 정체성 발달 이론은 인간을 보다 건강하고 통합된 자기관을 형성하기 위해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틀을 공유한다(Ryan & Deci, 2003; Soenens et al., 2005).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인의 정체성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기본적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은 정체성 발달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Luyckx et al., 2009). 구체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를 진행한 결과, 기본적 심리 욕구 충족은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 깊이 탐색, 두루 탐색과 정적 관계를 보였고 반추적 탐색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흥미에 따라 행동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은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반대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덜 지각하는 이들은 자신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고 느껴 자기이해를 위한 정보 탐색을 회피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자기상에 머무르게 된다(Soenens et al., 2005). 이처럼 정체성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자신의 내적 가치와 흥미를 탐색할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이런 점

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에게 통제된 환경으로 지각되고, 결국 정체성 발달 기회를 방해하고 심리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다(Deci & Ryan, 2000, Erikson, 1968; Luyckx, Vansteenkiste, Goossens, & Duriez, 2009; Marcia, 1980).

선행 연구들은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부적 관계를 밝혀왔지만, 오직 소수의 연구만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해 주목해왔다.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기존에 고려된 매개변인은 과제비용, 학업적 성공에 대한 가치, 학교의 지지, 교우관계로 주로 학업적 특성이나 타인과의 관계적 특성에 국한되어 있다(서문화, 윤미선, 2021; 신영미, 진미정, 2020; Ma, Siu, & Tse, 2018). 학업성취압력을 지각하는 시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와 맞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두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기의 경험과 삶의 태도가 성인기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Saha et al., 2010), 본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에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성인모색기 자녀의 정체성 발달 및 정신건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두루 탐색, 깊이 탐색, 진념 생성, 진념 동일시, 확고한 정체성)과 부정적 측면(반추적 탐색,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 중 어느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 25세 성인 중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10명을 모집하였다(여성 64명, 남성 46명).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28세(표준편차 = 1.95)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기보고식 척도들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고(KUIRB-2022-0333-01), 설문 시작 이전에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 측정 도구

####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느낀 학업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지각 척도(강영철, 200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 = .94$ 였다. 본래 이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에 현재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혹은 현재 지각하는 부모로부터의 학업성취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의 용례에 따라(김지근, 김나래, 2020; 조하정, 이다예, 박선웅, 2021) 현재형과 과거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하셨습니다).”와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하셨습니다).” 등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부모님의



행동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다.

### 정체성 발달

참여자들의 정체성 발달의 여러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Luyckx 등(2008)이 개발하고 Park 등(2021)이 번역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DIDS)이다. 이 척도는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에는 5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두루 탐색(exploration in breadth)은 전념 대상을 정하기 전 여러 대안에 대해 정보를 얻고 비교하는 과정( $\alpha = .91$ ; 예,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전념 생성(commitment making)은 여러 대안 중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alpha = .91$ ; 예,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깊이 탐색(exploration in depth)은 특정 대상에 대해 전념을 생성한 후 그 대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과정( $\alpha = .83$ ; 예, “내가 세워놓은 미래 계획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전념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는 생성된 전념에 대해 깊이 탐색해 자신의 전념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과정( $\alpha = .91$ ; 예, “미래에 대한 내 계획은 나의 진정한 흥미와 가치에 부합한다.”)을 각각 측정한다. 추가로,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은 내·외적 두려움, 위협 등에 의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성적으로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 $\alpha = .79$ ; 예, “내가 나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를 측정한다. 참여자들은 각 문

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사용된 정체성 발달 척도는 Kaufman 등(2015)이 개발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이다. 국내에 번역된 적이 없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두 명의 대학원생 연구자가 각각 번역 및 역번역을 하고, 수년간 정체성을 연구해온 교수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10개의 문항( $\alpha = .84$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고 있다.”가 있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11개의 문항( $\alpha = .84$ )이고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낸다.”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총 6문항으로( $\alpha = .87$ )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웰빙

참여자들의 개인적 웰빙은 두 종류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첫 번째는 Ryff(1989)가 개발하고 신희성 등(2017)이 번역한 심리적 웰빙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웰빙 척도는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예시 문항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개인으로서 많이

발전했다고 느낀다.”가 있다. 두 번째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2012)이 번역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이다. 총 5문항으로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두 웰빙 척도에 대해 모두 7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였다. 심리적 웰빙(평균 = 4.59; 표준편차 = 0.93)과 삶의 만족도(평균 = 4.18; 표준편차 = 1.31) 간의 상관은 높았고( $r = .79, p < .001$ ) 표준점수로 환산 뒤 평균을 내어 웰빙 점수로 사용했다.

### 우울

우울 변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종류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Radloff(1977)이 개발한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전점규와 이민규(1992)가 번역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alpha = .92$ ; 평균 = 1.79; 표준편차 = 0.53). 예시 문항으로는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지난 7일간의 각 문항에 해당하는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4점 척도(1 = 거의 드물게; 4 = 대부분)로 나타내었다. 두 번째 척도로는 윤서원 등(2018)이 개발한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를 사용하였다(평균 = 1.69; 표준편차 = 0.85). 본 척도는 총 11문항( $\alpha = .95$ )으로 예시 문항은 “(지난 2주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울적했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해 응답하였다. 두 척도의 상관은 매우 높았고( $r = .86, p < .001$ ) 표준점수로 환산 뒤 평균을 내어 사용했다.

### 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이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나이,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설문지에 제시된 9단계의 사다리 그림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응답하였다. 9는 상위 10%, 8은 상위 20%를 의미하며 2는 하위 20%, 1은 하위 10%를 의미한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기보고식 척도의 자료들은 SPSS 27을 통해 분석되었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 간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사이에서 각 정체성 발달 차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전체 8개 정체성 발달 차원을 한 모형에 투입하여 병렬매개효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PROCESS Macro(Hayes, 2018) 모델 4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PROCESS Macro의 병렬매개분석은 하나의 모형에 다수의 매개변수 투입이 가능한 방법으로 병렬적 매개구조에서 각각의 개별 매개 통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Hayes, 2013; Kane & Ashbaugh, 2017).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10,000번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의 계수가 95% 신뢰구간에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도 .05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보았다(Preacher & Hayes, 2004).

## 결 과

### 학업성취압력,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기술통계, 단순상관 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웰빙과 부적( $r = -.23$ )으로, 우울과는 정적( $r = .47$ )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이선미, 주영아, 2019).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압력은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반추적 탐색( $r = .24$ ), 교란된 정체성( $r = .22$ ), 정체성 결여( $r = .35$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지만, 긍정적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차원인

두루 탐색( $r = -.07$ ), 깊이 탐색( $r = -.06$ ), 전념 생성( $r = -.04$ ), 전념 동일시( $r = -.13$ ), 확고한 정체성( $r = -.12$ )과는 부적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정체성 변인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의 경우, 웰빙은 긍정적 정체성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차원인 두루 탐색( $r = .59$ ), 깊이 탐색( $r = .57$ ), 전념 생성( $r = .62$ ), 전념 동일시( $r = .65$ ), 확고한 정체성( $r = .73$ )과는 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반추적 탐색( $r = -.42$ ), 교란된 정체성( $r = -.30$ ), 정체성 결여( $r = -.73$ )와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우울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우울은 긍정적 측면에 해당하는 두루 탐색( $r = -.24$ ), 전념 생성( $r = -.23$ ), 전념 동일시( $r = -.39$ ), 확고한 정체성( $r = -.38$ )과는 부적 상관, 부정적 정체

표 1. 학업성취압력,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학업성취압력	-													
2. 두루 탐색	-.07	-												
3. 깊이 탐색	-.06	.82**	-											
4. 전념 생성	-.04	.60**	.67**	-										
5. 전념 동일시	-.13	.69**	.66**	.85**	-									
6. 반추적 탐색	.24*	-.09	-.05	-.46**	-.47**	-								
7. 확고한 정체성	-.12	.62**	.66**	.61**	.64**	-.24*	-							
8. 교란된 정체성	.22*	-.04	-.09	-.08	-.10	.35**	-.16	-						
9. 정체성 결여	.35**	-.33**	-.35**	-.41**	-.41**	.46**	-.60**	.59**	-					
10. 웰빙	-.23*	.59**	.57**	.62**	.65**	-.42**	.73**	-.30**	-.73**	-				
11. 우울	.47**	-.24*	-.17	-.23*	-.39**	.40**	-.38**	.28**	.53**	-.62**	-			
12. 성별(남=1, 여=2)	-.03	-.01	-.02	-.06	-.06	.06	-.02	-.08	.02	-.05	.12	-		
13. 나이	-.01	-.24*	-.20*	-.19*	-.21*	.21*	-.30**	.03	.13	-.18	.13	-.22*	-	
14. 사회경제적 지위	-.15	.34**	.34**	.16	.18	-.04	.28**	-.12	-.21*	.37**	-.21*	.08	-.10	-
평균	3.83	5.13	4.96	4.46	4.42	4.76	4.87	3.21	3.10	0	0	-	22.28	5.05
표준편차	1.34	1.11	1.07	1.28	1.26	1.16	0.88	0.92	1.27	0.95	0.96	-	1.95	1.90

\* $p < .05$ . \*\* $p < .01$ .

성 차원인 반추적 탐색( $r = .40$ ), 교란된 정체성( $r = .28$ ), 정체성 결여( $r = .53$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Kaufman et al., 2015; Park et al., 2021). 예외적으로 깊이 탐색( $r = -.17$ )은 우울과 부적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이는 두루 탐색( $r = -.24$ ), 깊이 탐색( $r = -.20$ ), 전념 생성( $r = -.19$ ), 전념 동일시( $r = -.21$ ), 확고한 정체성( $r = -.30$ )과는 부적, 반추적 탐색( $r = .21$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두루 탐색( $r = .34$ ), 깊이 탐색( $r = .34$ ), 확고한 정체성( $r = .28$ )과는 정적, 정체성 결여( $r = -.21$ )와는 부적관계에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웰빙( $r = .37$ ) 및 우울( $r = -.21$ )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매개분석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공변인으로 투입될 때와 되지 않을 때 유의성의 양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래 제시된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이다.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 정체성 변인의 간접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정체성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학업성취압력을 예측변인,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 8개의 변인을 매개변인,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한 웰빙과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각각 설정하여 총 16번의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IDS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반추적 탐색, SCIM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체성 결여만이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표 2).

다음으로, DIDS와 SCIM의 모든 하위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학업성취압력이 웰빙에 미치는 총효과( $b = -0.16$ )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 $b = -0.00$ )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 $b = 0.34$ )와 직접효과( $b = 0.20$ )는 모두 유의하였다.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차원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업성취압력은 정체성 발달 중 부정적 측면인 반추적 탐색( $b = 0.21$ ), 교란된 정체성( $b = 0.15$ ), 정체성 결여( $b = 0.33$ )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정체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확고한 정체성( $b = 0.23$ )은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정체성 결여는 부적( $b = -0.36$ ) 관계에

표 2. 예측변인(학업성취압력)과 준거변인(웰빙, 우울) 간 정체성의 간접효과 결과

간접효과	<i>b</i>	<i>SE</i>	95% CI
학업성취압력 → 반추적 탐색 → 웰빙	-0.07	0.03	[-0.14, -0.01]
학업성취압력 → 정체성 결여 → 웰빙	-0.18	0.05	[-0.29, -0.07]
학업성취압력 → 반추적 탐색 → 우울	0.05	0.03	[0.01, 0.11]
학업성취압력 → 정체성 결여 → 우울	0.10	0.04	[0.03,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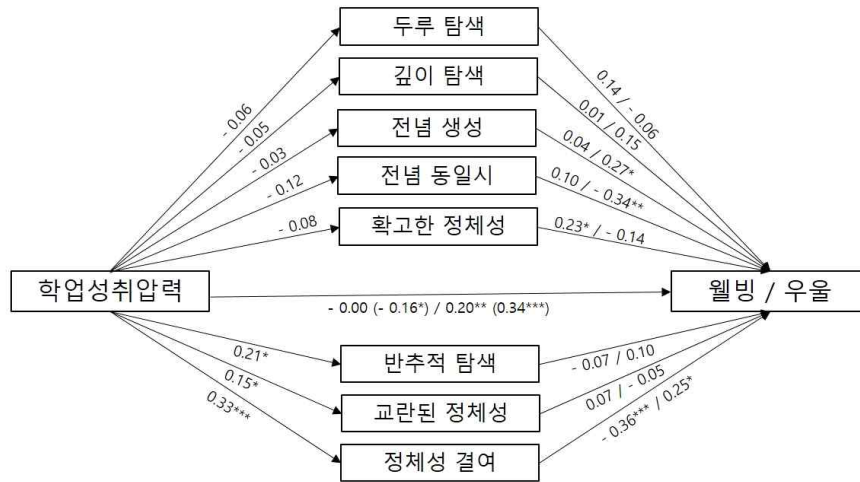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웰빙/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매개효과  
 주. 사선(/) 앞의 통계값은 웰빙, 사선 후의 통계값은 우울과 관련된 통계값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통계값은 총효과를 나타낸다.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다.  
 \*  $p < .05$ . \*\*  $p < .01$ . \*\*\*  $p < .001$ .

있었다. 우울의 경우, 전념 생성( $b = 0.27$ ), 전념 동일시( $b = -0.34$ ), 그리고 정체성 결여( $b = 0.25$ )가 각각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 정체성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 8개 하위요인 중 정체성 결여에서만 웰빙( $b = -0.12$ ,  $SE = 0.04$ , 95% CI [-0.20, -0.04])과 우울( $b = 0.08$ ,  $SE = 0.04$ , 95% CI [0.02, 0.17])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느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변인 간 단순상관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압력은 웰빙과는 부적, 우울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서문화, 윤미선, 2021; 신영미, 진미정, 2020; 이선미, 주영아, 2019; 정문경, 2020; 홍은자, 김희진, 2003).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업성취압력은 오직 정체성의 부정적 차원들, 구체적으로 반추적 탐색,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비일관적이고 불명확한 자기관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의빈과 김진원(2021)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논문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체성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문현, 이다예, 김소을, 박선웅, 2022; 박선웅, 박예린, 2019; Hardy et al., 2013; Marcia, 1980; Meeus et al.,

1997; Park, Kim, Moon, & Cha, 2021; Park & Moon, 2022; Pulkinen & Ronka, 1994). 구체적으로, 정체성의 긍정적 차원들은 높은 웰빙, 낮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정체성의 부정적 차원들은 반대 방향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업성취압력을 예측변인, 웰빙과 우울을 준거변인,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 8개의 차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총 16번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추적 탐색과 정체성 결여에서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체성 발달의 8개 차원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웰빙과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각각 설정하고 총 2회 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경우 모두에서 오직 정체성 결여만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압력은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차원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자녀의 자기결정 동기를 억제하고(김신아, 오인수, 2014; Black & Deci, 2000), 정체성 탐색과 전념의 기회를 방해한다(Luyckx et al., 2009; Soenens et al., 2005). 나아가 선행 연구들에서도 밝혀졌듯 불명확한 정체성은 높은 우울과 낮은 심리적 웰빙 등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김수연, 2019; Luyckx et al., 2011; Sharma & Chandiramani, 2021).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에서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높은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

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낮은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은 아니며, 정체성 발달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양육방식은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흥미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탐색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며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적 과제를 주고 이에 따른 피드백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은 자녀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유능성까지 충족시킨다. 또한 이런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관계성 욕구를 충족한 자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탐색할 힘을 얻게 된다(La Guardia, 2009).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한 자녀들은 자기결정 동기를 발휘하고(김신아, 오인수, 2014)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며(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긍정적 정신건강(송미라, 한기백, 2015)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제 차원이 아닌 자율적이고 지지적 차원의 양육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매개분석에서는 반추적 탐색과 정체성 결여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병렬매개분석에서는 오직 정체성 결여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체성 결여는 기존 정체성 발달에 대한 실증적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념으로, 최근 정체성과 정신병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Kaufman 등(2015)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다. 정체성 결여는 공허함, 방향성 상실, 결여된 실존의식의

상태를 포함하고,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과 부적인 관계를, 신경증과 경계성 성격장애와는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등 부정적인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Bogaerts et al., 2021). 반추적 탐색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막연하게나마 답을 찾으려는 상태라면, 정체성 결여는 이러한 노력조차 없이 자기개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체성 결여가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을 유일하게 매개했다는 것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단순히 자기이해의 부족을 넘어 자기개념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체성 결여가 신경증과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Bogaerts et al., 2021; Kufman et al., 2015), 정체성 결여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정체성의 부정적 차원 중 교란된 정체성은 단순매개에서도 병렬매개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란된 정체성이 다른 부정적 측면과 달리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의 사이를 매개하지 않은 이유는 교란된 정체성의 특징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교란된 정체성은 주변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 비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자기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관계주의적 문화와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상황이나 타인에 관계없이 일관된 자기(self-consistency) 유지를 중요시하는 서양문화와 달리 관계주의적 문화인 한국에서는 상황이나 타인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규범으로 여긴다(허태균, 2015; Cross, Gore, & Morris, 2003).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

성을 고려했을 때 교란된 정체성은 타 부정적 차원들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그 부정적 영향력 또한 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란된 정체성이 자기관의 완벽한 부재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과 한국의 관계주의적 문화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해석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사이의 매개변인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개인 내면 심리에 주목하기보다는 학업적 특징 혹은 타인과의 관계적 특징 등 개인 외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하지만, 학업성취압력을 지각하는 시기가 정체성 형성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체성 발달 상태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정체성 발달을 통해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모색기 혹은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명문대학교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업성취압력을 받지만, 막상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업성취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높은 학업성취압력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고, 이는 다시 취약한 정신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한 횡단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높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넘어 자살까지도 포함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정체성 부재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은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있다(김은정, 2009). 또 대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김지근, 김나래, 2020). 나아가 정체성은 진로 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체성을 명확히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로에 대한 방향성 역시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혼란을 경험한다(이희선, 선우현정, 2015).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성공이 이후 안정된 직업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부모의 믿음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나 자녀가 정체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자율성 지지 환경을 제공해주고 양육태도 차원으로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지지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 혹은 교육기관 차원에서 높은 학업성취압력과 취약한 정신건강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탐색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 형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조하정 등(2021)은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명확한 정체성 글쓰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 상관

관계에 있었는데, 정체성 명확성 글쓰기 조작이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를 감소시켰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했던 순간을 상기하는 것이 외부로 향했던 시각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여 상태 물질주의를 감소시킨 것이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물질주의를 단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기에 개인 스스로 자기성찰과 탐색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학업성취압력의 부정적 영향력 또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정체성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체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보고된 바가 있는 만큼(서영숙, 최은정, 정추영, 2017)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해 자기관이 불투명해지고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자녀가 지각한 압력 수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압력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내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다룬 논문들은 자녀가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을 변인으로 주로 사용하였다(김지근, 김나래, 2020; 남상필 등, 2012; 서문화, 윤미선, 2021; 선혜연, 오정희, 2013; 이선미, 주영아, 2019; 조하정 등, 2021; 추상엽, 임성문, 2008). 따라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실제 행동과 자녀의 지각 수준을 측정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 차원의 학업성취압력과 함께 자녀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육태도 차원의 학업성취압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사이를 정체성의 부정적 측면이 매개하였지만, 지지와 관심의 차원인 양육태도 개념의 학업성취압력이 고려된다면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의 사이에서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양육태도 차원의 학업성취압력을 지각한 자녀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는 곧 긍정적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자기보고적 방식으로 1회에 거쳐 측정하였다. 이러한 횡단연구를 기반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변수 간 관계 변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을 우울을 통해서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신병리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기반으로 정신병리를 선별한 기존 용례(김현정, 고영건, 2012; 백인규 등, 2019; 신현숙, 2021; 이승연, 안소현, 2018; Keyes, 2007; Keyes et al. 2010)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도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철 (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9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pageIndex=1>
- 김성일, 소연희, 윤미선 (2008).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87-221.
- 김수연 (2019). 대학생의 정체성 혼미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인지와 부정적 자아인지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463-482.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463>
- 김신아, 오인수 (2014). 부모와 교사의 지원 및 성취압력이 학업성취집단별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5(1), 29-52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63-109.
- 김지근, 김나래 (2020). 부모의 성취압력이 대 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의 두려움과 진로정체감의 이중 매개효과. *인간이해*, 41(1), 49-66.  
<http://doi.org/10.30593/JHUC.41.1.3>
- 김현정, 고영건 (2012). 정신건강의 2요인 구조: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4), 1087-1096.
- 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문상석, 염유식 (2010). 학벌과 불행: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 *현대사회와 문화*, 31, 73-102.
- 문 현, 이다예, 김소을, 박선웅 (2022).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서사정체성의 증분타당도: McAdams의 성격 3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1), 1-24.  
<https://doi.org/10.21193/kjspp.2022.36.1.001>
- 박선웅, 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2.001>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4), 79-113.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백인규, 고영건, 문기범 (2019). 정신건강 2요인 모델 타당화 연구: 젊은 성소수자(LGB)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403-422.
- 서문화, 윤미선 (202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과제비용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5(4), 563-582.  
<https://doi.org/10.17286/KJEP.2021.35.4.02>
- 서영숙, 최은정, 정추영 (2017). 자아성장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5(3), 926-936.
- 선혜연, 오정희 (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4(1), 197-212.
- 송미라, 한기백 (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 신영미, 진미정 (2020). 부모의 성취지향적 기대와 고등학생의 우울 간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2), 229-238.  
<https://doi.org/10.6115/fer.2020.017>
- 신현숙 (2021). 정신건강 2 요인 모형에 기초

- 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유형별 삶의 의미, 학업참여, 목표조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8(10), 317-346.
- 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2017).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보건사회연구*, 37(3), 368-397. doi: 10.15709/ hswr.2017.37.3.368
- 윤서원, 이빛나, 박기호, 정수연, 김신향, 박연수, 최기홍 (2018).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 도구 개발과정: 예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7(2), 252-262.  
<https://doi.org/1.15842/kjcp.2018.37.2.011>
- 윤예인, 김주일 (2019).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48, 219-241.
- 이선미, 주영아 (2019). 부모학업성취압력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0(2), 331-346.  
<https://doi.org/10.22143/HSS21.10.2.24>
- 이승연, 안소현 (2018). 정신건강 2 요인 모델에 따른 완전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유형 간 차이와 개입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197-219.  
<http://dx.doi.org/10.16983/kjcp.2018.15.2.197>
- 이의빈, 김진원 (2021). 부모의 과잉간섭이 대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8), 83-116.
- 이현지, 김민수 (2021). 부모의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6), 1185-1195.  
<http://dx.doi.org/10.22143/HSS21.12.6.84>
-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자아정체감, 부모의 방임. *청소년학연구*, 22(6), 57-73.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정문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471-493.
- 정문경 (2020).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9, 201-227.  
<http://dx.doi.org/10.20993/jSSW.49.9>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조하정, 이다예, 박선웅 (2021).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명확성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3), 27-45.  
<https://doi.org/10.21193/kjspp.2021.35.3.002>
- 추상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성취 간의 관계 -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최은수, 최중안, 최인철 (2019). 대한민국 행복 지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한민국 지역별 행복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4), 647-667.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청소년*

- 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결과 보고서. 교육과정평가본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IMSS 2019.
- 한국행정연구원 (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4>
- 허태균 (2015). 어쩌다 한국인. 서울: 중앙북스.
- 홍은자, 김희진 (2003).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유아의 학원·학습지 이용 및 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과 권리*, 7(1), 181-200.
- 황예텔, 이경순 (2019).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 과보호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7(3), 179-206.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o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4.tb00743.x>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ssor, A., Roth, G., & Deci, E. L. (2004). The emotional costs of parents' conditional regard: A self-determination theor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2, 47-88. <https://doi.org/10.1111/j.0022-3506.2004.00256.x>
- Black, A. E. & Deci, E. L.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6), 740-756.
- Bogaerts, A., Claes, L., Buelens, T., Gandhi, A., Kiekens, G., Bastiaens, T., & Luyckx, K. (2021).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in adolescen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5), 377-387.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623>
- Boggiano, A. K., Flink, C., Shields, A., Seelbach, A., & Barrett, M. (1993). Use of techniques promoting students' self-determination: Effects on students' analytic problem-solving skills. *Motivation and Emotion*, 17(4), Retrieved From 319-336. <https://doi.org/10.1007/BF00992323>
- Cote, J. E., & Levine, C. G. (2002). *Identity formation, agency, and culture: A social psychological synthesis* (1st ed.).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1410612199>.
- Cramer, P. (1997). Identity, personality, and defense mechanism: An observation based sto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58-77. <https://doi.org/10.1006/jrpe.1997.2171>
- Cross, S. E., Gore, J. S., & Morris, M. L. (2003).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concept consistency,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933-944. <https://doi.org/10.1037/0022-3514.85.5.93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https://doi.org/10.1002/bs.3830140209>
- Finzi-Dottan, R., Bilu, R., & Golubchik, P. (2011). Agg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former Soviet Union immigrant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ing style and ego ident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6), 918-926.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0.12.008>
- Greenspoon, P. J., & Saklofske, D. H. (2001). Toward an integr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patholog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81-108.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The inner resources for school performance: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508-517.  
<https://doi.org/10.1037//0022-0663.83.4.508>
- Hardy, S. A., Francis, S. W., Zamboanga, B. L., Kim, S. Y., Anderson, S. G., & Forthun, L. F. (2013).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moral identity in college student mental health, health risk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4), 364-382.  
<https://doi.org/10.1002/jclp.2191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Kane, L. & Ashbaugh, A. R. (2017). Simple and parallel mediation: A tutorial exploring anxiety sensitivity, sensation seeking, and gender. *The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13*(3), 148-165.
- Kaufman, E. A., Cundiff, J. M., & Crowell, S. E. (2015). Th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validation of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A self-report assessment of clinical identity disturbanc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1), 122-133.  
<https://doi.org/10.1007/s10862-014-9441-2>
- Keyes, C. L. (2007). Promoting and protecting mental health as flourishing: A complementary strategy for improving national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62*(2), 95-108.
- Keyes, C. L., Dhingra, S. S., & Simoes, E. J. (2010). Change in level of positive mental health as a predictor of future risk of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2), 2366-2371.
- Kouros, C. D., Pruitt, M. M., Ekas, N. V., Kiriaki, R., & Sunderland, M. (2017). Helicopter parenting, autonomy support, and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sex and ethnic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 2(3), 939-949.
- Krettenauer, T. (2005). The role of epistemic cognition in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Further evid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3), 185-198.  
<https://doi.org/10.1007/s10964-005-4300-9>
- La Guardia, J. G. (2009). Developing who I am: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identities. *Educational Psychologist*, 44(2), 90-104.  
<https://doi.org/10.1080/00461520902832350>
-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 Ryan, R. M.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1), 68-84.  
<https://doi.org/10.1037/0022-0663.96.1.68>
-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6). Unpacking commitment and exploration: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of late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3), 361-378.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5.03.008>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https://doi.org/10.1016/j.jrp.2007.04.004>
-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L., Beyers, W., & Missotten, L. (2011). Processes of personal identity formation and evaluation.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77-98). New York: Springer.
- Luyckx, K., Vansteenkiste, M., Goossens, L., & Duriez, B. (2009). Basic need satisfaction and identity formation: Bridg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process-oriented identit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76-288.  
<https://doi.org/10.1037/a0015349>
- Ma, Y., Siu, A., & Tse, W. S. (2018). The role of high parental expectations adolesc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depression in Hong Kong. *Journal of Family Issues*, 38(9), 2505-2522.  
<https://doi.org/10.1177/0192513X18755194>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https://doi.org/10.1037/h0023281>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59-187). New York: Wiley.
- Marcia, J. E. (2003). Treading fearlessly: a commentary on personal persistence, identity development, and suicid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8, 131-138.  
<https://doi.org/10.1111/1540-5834.00257>
- Meeus, W., Dekovic, M., & Ledema, J. (1997). Unemployment and identity in adolescence: A social comparison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369-380.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0540.x>

- Papakostas, G. I., Petersen, T., Mahal, Y., Mischoulon, D., Nierenberg, A. A., & Fava, M. (2004). Quality of life assessment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General Hospital Psychiatry, 26*(1), 13-17.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1).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07/s12144-021-01838-w>
- Park, S. W., Kim, S., Moon, H., & Cha, H. (2021).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 Korean adults. *Narrative Inquiry*.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75/ni.21047.par>
- Park, S. W., &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41*, 4066-4078. <https://doi.org/10.1007/s12144-020-00926-7>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ulkkinen, L., & Ronka, A. (1994). Personal control over development, identity formation, and future orientation as components of life orientation: A developmental approach.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60-271. <https://doi.org/10.1037/0012-1649.30.2.26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ose, D. N., & Bond, M. J. (2008). Identity, stress and substance abuse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Substance Use, 13*(4), 268-282. <https://doi.org/10.1080/14659890801912006>
- Ryan, R. M., & Deci, E. L. (2003). On assimilating identities to the self: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n internalization and integrity within cultures.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253-275). New York: Guilford Press.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2), 149-165.
- Schwartz, S. J., Côté, J. E., & Arnett, J. J. (2005). Identity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Two developmental routes in the individualization process. *Youth & Society, 37*(2), 201-229.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harma D. & Chandiramani K. (2021). Impact of identity proc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9*(1), 769-786.

- <https://doi.org/10.25215/0901.082>  
Soenens, B., Berzonsky, M. D., Vansteenkiste, M., Beyers, W., & Goossens, L. (2005). Identity styles and causality orientations: In search of the motivational underpinnings of the identity exploration proc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5), 427-442.  
<https://doi.org/10.1002/per.551>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Luyten, P., & Goossens, L. (2005).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487-498.  
<https://doi.org/10.1016/j.paid.2004.05.008>
- Suldo, S. M., & Shaffer, E. J. (2008). Looking beyond psychopathology: The dual-factor model of mental health in youth. *School Psychology Review, 37*(1), 52-68.
- Waterman, A. S. (2007). Doing well: The relationship of identity status to three measures of well-being.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7*(4), 289-307.  
<https://doi.org/10.1080/15283480701600769>
- White, J. M., & Jones, R. J. (1996). Identity style of male inmat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490-504.  
<https://doi.org/10.1177/0093854896023003005>

논문 투고일 : 2022. 06. 24  
1 차 심사일 : 2022. 07. 05  
2 차 심사일 : 2022. 09. 18  
게재 확정일 : 2022. 09. 22



## The Mediation Effect of Identity Development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s and Mental Health

Gayeong Yun<sup>1)</sup>

Joonbae Lee<sup>1),2)</sup>

Sun W. Park<sup>1)</sup>

<sup>1)</sup>Korea University

<sup>2)</sup>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identity development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PAAP) and mental health. Specifically, we examined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PPAAP and mental health is mediated by the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Participants were 110 Korean college students. They completed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PPAAP, identity development, personal well-being, and depression. We found that PPAAP was negatively related to personal well-being and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Moreover, the relation between PPAAP and mental health was mediated only by the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In other words, PPAAP was related to the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which, in tur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proposed identity development as a mediator between PPAAP and mental health and found that the negative, not posi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mediated the rel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interventions that help develop identity can be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PPAAP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living in the highly competitive Korean societ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identity development, psychological well-being, satisfaction with life, depression, mediation effect